

제주도 주부의 사회관계망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Preliminary Study to Analysing Married Women's Social Networks in Cheju Island

김 혜 연*

目 次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사회관계망의 개념 및 정의
 3. 사회관계망의 구조
 4. 사회관계망의 기능
 5. 주부의 사회관계망
 6. 맺음말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esearches of the social networks and further to establish a the conceptual frameworks on the married women's social networks in Cheju Island. This study was proceeded as follows. The theoretical concepts of the social network were discussed. On this basis, the social network's structure and function were distingush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ed women's networks were clarified. Finally, an example of the social network map was suggested. Concluded in this map were three factors : 1) the kinds, size and the importance of the network, 2) the frequency, direction and the conflict degree of interaction, and 3) instumental or emotional support type. These can show the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혜연

structure of social relations,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nd the function of social network in which married women might have relations with any other persons/groups. The empirical analysis on wives' social networks will be needed to raise the level of their welfare.

1. 문제의 제기

주부역할은 대체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소한 여러 생활사건들 뿐 아니라 첫부모되기 등의 큰 생활사건 등으로 도움을 받고 적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주부는 자신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

주부가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조직 내지 총합을 의미하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은 이와 같이 주부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상호교환해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자체가 주부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기도 하므로, 주부에게 있어서 사회관계망은 일종의 사회환경적 자원으로 존재한다(Deacon & Firebaugh, 1988).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통합성의 부족은 개인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 뿐 아니라 불건강(illhealth)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Gottlieb, 1981; Milardo, 1988). 뿐만 아니라 문제상황에 있어서 유용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은 개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부의 사회관계망은 주부의 복지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구 사회에서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 주부들은 같이 모여서 일을 하거나 사교모임을 자주 가짐으로써 활발한 교류를 했었다. 심지어 도심지라고 해도 주택이 대부분 좁은 골목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주부들은 서로 상호작용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Smuts, 1960).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사회의 주부는 그 고립적 위치가 특징으로 Oakley(1974)는 '소외감은 현대사회의 주부에게 있어 하나의 직업상의 위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장소가 분리되면서 주부가 가정을 담당하게 되고, 가전제품이 보급되어 공동이 아닌 개인 가정단위로 가사일을 할 수 있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 여기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교외지역으로의 이주와 취업주부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Ferree, 1980). 교외지역의 주택은 밀집된 주택지역에 비해 주부들 간의 교류를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취업주부의 점진적인 증가는 낮에 이웃에서 주부가 또 다른 주부를 만나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부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사회관계망의 지지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와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 대별되어(Gottlieb, 1981; House, 1981; Wellman & Berkowitz, 1988)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사회관계망이 어떻게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이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가 특수한 상황하의 개인, 예를 들면 노인, 환자, 극빈자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져 왔다(성규탁, 1990; 조은, 조옥라, 1992; Keith, 1986).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정상인의 사회관계망의 구조 및 기능, 나아가 그것이 개인생활이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제주도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그것이 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연구목적에 갖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적 논의를 종합하며,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을 밝힌 후 주부의 사회관계망이 갖는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제주도 주부의 사회관계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

2. 사회관계망의 개념 및 정의

사회관계망의 개념은 원래 개인이 지역사회와 맺는 유대감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구조¹⁾나 혹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대인관계의 구조를 기하려는 노력²⁾으로부터 발달되어왔다(Milardo, 1988; Wellman & Berkowiz, 1988).

사회관계망 개념 형성에 공헌을 한 초기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인 Barnes(1954)는 사회관계망을 “점들의 집합으로, 그들 중 몇 개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점들은 사람이며 … 선들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회관계망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한 Bott(1971)는 사회관계망을 “가족구성원이 외부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의 집합체”로서 정의하였다.

- 1) Radcliffe - Brown, Simmel과 같은 영국의 사회학자 및 사회인류학자들이 사회관계망을 사회적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적인, 암시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2)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영국의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기 위해 sociogram과 관련된 그래프기법, matrix 대수기법, 집락분석과 같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발달시켰다.

Lee(1979)는 사회관계망이란 “어떤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그들 안에서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각 개인은 적어도 또 한 명의 다른 사회관계망 성원과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Wellman과 Berkowitz(1988)은 사회관계망은 “중심점 - 사람, 집단, 회사, 또는 다른 제도 - 을 연결하는 관계의 조직과 중심점 조직을 포함하는 사회구조 단위”라고 정의하였고, Surra(1988)는 “보통 한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관계망의 분석은 그러한 집합체내의 두 사람간의, 또한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관계망이란 개인이 맺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적 개념이지만,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³⁾의 개념과 혼동되기도 한다.

사실 한 개인/집단과 다른 개인/집단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누가 누구와 함께 어떠한 문제로 무엇을 주고 받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집단에게 어떠한 심리적, 행동적 영향이 나타났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과 그 구조로부터 개인이 얻게 되는 지지와 같은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로 대별될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의 사회적 관계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망 성원으로 부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종류와 정도 등에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상호교환적, 혹은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⁴⁾.

이에 대해 Israel은 사회관계망을 사회적 관계의 구조로, 사회적 지지는 기능으로 분리하는 것은 오직 개념 상의 분리일 뿐이라고 하면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를 다른 개념으로 다루게 되면 사회관계망이 정적인 개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서미경, 1990에서 재인용).

그러나 Warren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기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Wood & Robertson, 1978에서 재인용), Weiss(1974)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이 다를 때 지지유형이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다. Tolsdorf와 Kapferer의 연구(Hirsch, 1980에서 재인용)도 상이한 관계망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유용한 지지의 특성, 나아가 개인의 복지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들(Hirsch, 1980; Wellman & Berkowitz, 1988)이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관계망은 사람들의 집합체이고, 사회적

3) 사회적 지지는 오래 전부터 인간의 건강유지와 증진에 기여하는 비형식적인 지지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져왔는데, 1970년대 초 Cassel과 Caplan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했다.

4) 예를 들어 Myers와 Coward(1983)와 Eaton(1978)과 같은 학자들은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고(McLanahan et al., 1981에서 재인용), Stoller와 Earl(1983)은 지지관계망(support net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지는 사회관계망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사회관계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이 이름을 알고 있고, 약간의 접촉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할 경우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해진다⁵⁾. 사회관계망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따라 사회관계망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밀접한 관계의 관계망(networks of close associates)이 있다. 이 관계망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거나 친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이경희, 1988; Johnson & Milardo, 1984).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망을 정의할 경우 대체로 이름을 열거하는 시간의 양이 최소화되며, 응답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람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 적대적, 갈등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략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서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등 관계망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무시될 수 있다.

둘째, 교환관계망(exchange networks)이 있다.

이 관계망은 우선 개인이 보상적인 교환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조사한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유도하는 절차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보충하는 것으로 Fischer가 개발한 것이다(Milardo, 1988). 이 방법에 의하면 “중요한 타인”이나 “밀접한 친구”와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보다는 명백한 표준에서 선정하므로 보다 타당한 성원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적인 교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해야 하며, 이름을 유도하는 절차의 신뢰성에 따라 관계망의 측정이 좌우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핵심 관계망의 성원으로 간주할 것인가는 조사자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객관성 유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게 함으로써 지지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Barrera, 1981).

셋째, 상호작용적 관계망(interactive networks)이 있다. 이 관계망은 실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기초로 파악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기간을 주, 달, 년 등으로 정하고,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후⁶⁾ 지지적, 방해적 기능의 관점에서 다양한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회상적 보고서(recall self-report) 혹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의 빈도를 응답자가 직접 평가하거나 연구자가 상호작용의 빈도를 총합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 방법에 의해 얻어진 관계망 자료는 다른 방법에 의한 것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부의 사회관계망이란 주부가 특정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본 연구는 주부의 사회관계망 분석에 있어서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을 밝힌 후 기능

5) Killworth et al(1984)는 이러한 정의 하에 1차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이 보고한 사회관계망 성원의 수가 평균 134명이었다고 밝혔다.

6) “지난 주(지난 달 혹은 작년)에 누구와 자주 만났습니까”, 혹은 “친척, 친구, 친지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적 측면을 파악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양적 관계망에 대한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보다 객관적인 사회관계망의 해석이 가능하므로(Wilcox, 1981),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을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이다.

3. 사회관계망의 구조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지만, 크게 사회관계망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는 구성적 측면과 관계망성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관계적 측면⁷⁾으로 나눌 수 있다(표1 참조). 이 중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학 자	구조의 구분	지 표
Mitchell (1969)	형 태 상 호 작 용	중심지 ¹⁾ 밀 도 ²⁾ 접근성 범 위 내 용 ³⁾ 방 향 지속성 강 도 접촉빈도
Liang et al(1980)	객관적인 면 주관적인 면	상호작용의 양 친밀감의 지각
Barrera (1981)	구 조 관 계	결혼상태 접근성 지역사회조직과 문화활동 참여 가정내 양부모의 존재 지지에 대한 만족 주요 관계에 대한 행복 사회적 밀착의 적합성
Eckenrode & Gore (1981)	구 조	크 기 신뢰성 근접성 친밀성
McLanahan et al(1981)	구조와 관계	중심지 밀 도 내 용 방 향 지속성 강 도 접촉빈도 범 위

7) 여기에서 사회관계망의 관계적 측면이란 관계망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상호작용이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특별한 교환으로 현재 발생하는 것이지만, 관계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유된 이해와 감정으로 이루어진다(Larson & Bradney, 1988).

학 자	구조의 구분	지 표
Gallo (1984)	구 조	크 기 접촉빈도 거 리 지속기간 방 향 친밀도
Kessler & McRae (1984)	구 조	가족형태 상호작용빈도 사회활동 참여 사회관계망성원과의 밀착정도
Tietjen (1985)	구 조	종 류 관 계 크 기 접촉빈도 범 위 호혜성
Rands et al(1979)	구 조 구 성 상 호 작 용	크 기 밀 도 부 분 ⁴⁾ 구 성 관계망의 종류 관계망성원의 성별 관계망성원의 결혼상태 상호작용 접촉빈도 지속성 밀 도 대칭성 교환의 다양성 배우자의 목표 추진 정도
Surra (1985)	구 조	내 용 다양성 접촉빈도 지속성 강 도 대칭성 ⁵⁾ 방해정도 ⁶⁾

- 1) 자기자신
- 2) 관계망성원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정도
- 3) 관계망성원과의 관계가 복잡한 정도
- 4) 관계망성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통합, 분산, 분리로 구별
- 5) 관계의 유사성의 정도
- 6) 목표지향적 사건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정도

(1) 사회관계망의 구성

1) 사회관계망의 종류

사회관계망은 크게 가족관계망(family network)과 가족이외의 관계망(extra family network)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성원과 자발적 단체 성원(종교단체 혹은 사회봉사단체), 직장동료 및 공식적 집단의 성원 등(이경희, 1988; Ratcliff & Bogdan, 1988)을 종류로 들 수 있다. 가족관계망을 개인의 사회관계망에서 제외시키는 학자(Cochran & Brassard, 1979)도 있지만,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회관계망이다. 특히 주부에게 있어서 가족관계망은 가장 상호작용이 긴밀하며 영향력이 있는 관계망으로 간주된다. 또한 공식적 성원보다는 비공식적 성원의 관계망이 주부에게는 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관계망의 크기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관계망의 중요한 구조적 차원으로 한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관계망의 종류별로 있을 수 있으며, 각 종류별 크기를 합한 수가 한 개인의 전체 사회관계망 크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친구와 친척관계망의 경우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ckenrode & Gore, 1981). 성규탁(1990)은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관계망의 크기를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가족관계망은 1.68명, 친척관계망은 .93명, 친구관계망은 1.21명, 그리고 이웃관계망은 .95명으로 나타나 노인이 되면 관계망의 크기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주부의 경우 결혼, 특히 임신할 경우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혼이나 출산 등 여성적 책임이 사회관계망과의 교류를 위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McCannell(1984)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주부의 임신 중 사회관계망 크기는 16.6명, 자녀출생 후 14.6명, 그 위 일년 후에는 13.5명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관계망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주부의 친척관계망에 대한 이동원(1984)의 연구에서 주부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만나 는 친척의 수는 시가, 친청 양가에 각각 3-4명 정도였다.

3) 중요도

사회관계망의 중요도란 일상생활에서 관계망성원에 대해 개인이 두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거 주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망은 가족이었다. 최근에는 주부들이

그러한 역할정체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Baruch 등은 35 - 55세의 여성 23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자녀와 남편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rshall, 1984). 그러나 일부 그러한 경향이 인식되고 있기는 해도 주부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망일 수 있다. 이동원(1984)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는 가족을 비롯한 현연관계였다. 한편 한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관계망은 연령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친구관계망이 우선적인 관심사일 수 있지만,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서 친구에 대한 열정이 적어지게 되고, 가족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시기인 노년기가 되면 다시 친구가 중요해진다(Larson & Bradney, 1985).

(2) 사회관계망과의 관계

접촉빈도는 개인이 사회관계망과 전화, 방문, 서신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영희(198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주부들은 전반적으로 4촌 이내의 친척과 만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가형제를 가장 자주 만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시가형제, 친가부모의 순으로 만나고 있는데, 만나는 횟수는 한 달에 1-2회 이상이었다. 그러나 유가효(1984)에 의하면 친척방문비율은 시가가 친정 보다 높고, 일반 가족들과는 일정한 정도의 의례적 접촉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친구와의 우정은 보통 빈번한 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편지, 전화, 때때로의 방문에 의해서 지속이 되는 특징을 갖는다(Pahl & Pahl, 1971). 이영희(1986)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주부가 친구와 만나는 횟수는 한달에 1-2회 정도가 많았다. 한편 농촌주부는 대체적으로 이웃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반면, 도시 주부는 표면적인 접촉을 하고, 접촉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순, 1975).

2) 방 향

이것은 개인과 사회관계망과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에서 형성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부로부터 사회관계망으로 혹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주부로 형성되는 일방적인 관계와, 주부와 사회관계망이 서로 호혜적(쌍방향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흐름이 일반적이어서 부모세대는 후원자이고, 자녀는 호혜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1979). 그러나 주부와 친구 및 이웃관계망과의 관계는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거나 활동에 참여하고, 특별한 문제에 대한 상호원조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망과는 일방적인 관계 보다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다(김동우, 1984; Bradney, 1985).

3) 갈등도

갈등도란 개인이 사회계망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적인 특성으로서 그 관계가 우호적인가 혹은 갈등적인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사회관계망의 지지적 기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즐기고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비자발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기 조차 하다(Wellman & Berkowitz, 1988). 개인은 친척, 이웃, 친구 등 모든 사회관계망과 갈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이 가장 지지적 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관계망이라고 지적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Wilcox, 1981). 그러나 보통 주부와 갈등적인 관계를 갖는 사회관계망은 시가친척 관계망이기 쉽다. 결혼해서 시가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갖게 되는 관계는 가장 갈등적이고 불편한 관계로 여겨지고 있다(유가효, 1984; 최정혜, 황기아, 1987). 이러한 시가친척과의 갈등에 가장 취약한 시기는 결혼초기이며, 이것은 젊은 부부가 시댁에서 살고 있을 경우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1979).

4. 사회관계망의 기능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과 관계를 갖고 싶어하며, 공동생활을 원하므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 욕구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가 인간의 정서충족이라는 목적이 되기도 한다(Cooley, 1964). 즉 사회관계망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게 해주며, 고독감을 해소시켜줄 뿐 아니라 개인을 지지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지지적 기능을 Cobb(1976)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보살핌을 받고, 사랑 받고, 평가받고, 상호의무의 관계망 성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라고 하였다. 또한 Kahn과 Antonucci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지지를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애정의 표현, 다른 사람의 행동, 인식, 표현된 관점의 승인, 다른 사람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Caplan et al(1975)은 애정, 인정,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의미있는 사람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란 개인이 갖고 있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수여자(receiver)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도록 개인(집단)이 직접 제공해주는 투입(input)인 것이다(Caplan et al., 1975).

이러한 의미에서 Hirsch(1980)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가 개인에 대한 도움이라는 협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생활의 본질과 가치를 반영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관계망을 개인의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해주고, 지지해주는 개인사회(personal community)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는 그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Pinneau(1975)는 유형적(tangible) 지지와 정서적(emotional) 지지로, LaRocco et al(1980)는 심리적(psychological) 지지와 유형적(tangible) 지지로, Thoits(1982)는 사회정서적(social-emotional) 지지와 물질적(material) 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도움, 정보, 물질 및 서비스의 지지로 나누었고,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형태를 감정적 지지(존경, 애정, 신뢰 및 경청하기), 평가적 지지(확신, 피이드백 및 사회적 비교제공), 정보적 지지(충고, 제안, 지시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도구적 지지(친절, 돈, 노동, 시간 및 환경의 수정에 도움을 줌)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기원(1991)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그리고 사교적 지지로 나누었다.

만일 개인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이러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자신이 지닌 자원의 부족을 완충시켜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완충효과설(buffering effect hypothesis)(Wheaton, 1983)이라고 한다. 즉 사회관계망이 지지적일 경우 개인의 스트레스 강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복지감 유지는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자체이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자원은 지속적인 역할관계를 통해 얻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주효과설(main effect hypothesis)(Thoits, 1982; Cohen & Syme, 1985)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자아정체감의 안정과 긍정적인 자기평가 및 통제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인 적응을 가져오는 반면, 사회적 관계의 실패나 역할의 상실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 사건으로 경험되어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관계망의 지지적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Bohannan은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Wilcox, 1981). 또한 Kessler 등(1985)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고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무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제공된 지지보다 지각된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거나 실제로 지지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가 지지라고 인식하지 않을 경우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복지에 대한 예측은 단순히 지지자의 수, 지지적 행동의 양 등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수집하기 보다는 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더 유용할 수 있다(Barrera, 1981). 즉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관계망이 존재하고, 신뢰적 관계이거나 보호적이라는 사회관계망의 구조보다는 특정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가와 같은 사회관계망의 기능이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Ratcliff & Bogdan, 1988).

그러므로 주부가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의 구조 뿐 아니라 지지유형과 같은 기능 및 그에 대한 주부의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주부의 사회관계망

주부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총합인 사회관계망은 그 종류에 따라 각 각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주부의 사회관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혈연관계의 관계망

1) 가족관계망

남편과 자녀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망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복합적 조직망으로 안정, 동정, 지지의 근원이다.

부부관계는 가족을 형성하는 일차적 요건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성숙해지며,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파괴적이

며, 고통스러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다(이효재, 1983). 즉 결혼생활이란 사랑을 기본으로 한 타인 간의 결합이지만, 생활과정 중에 갈등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결혼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 간의 감정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지적인 남편의 존재는 아내의 결혼생활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의 만족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erkowitz & Perkins, 1984).

한편 성인여성에게 있어서 어머니되기(motherhood)는 지속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여성은 자녀의 요구에 헌신적이며, 그러한 관계에서 무한한 만족을 느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Chodorow & Contratto, 1982). 반면 자녀가 없는 주부와 자녀가 있는 주부의 복지감에는 차이가 없으며, 결혼한 여성의 전체적인 행복감은 자녀가 가정을 떠날 때 커진다는 연구결과(Coleman et al, 1987)도 나타난다. 따라서 오늘날 주부는 가족관계망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친척관계망

Lasswell과 Lasswell(1982)은 친척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였다. 주부의 사회관계망은 주부의 여성친족, 특히 어머니, 여자형제들로 구성되기 쉬운데, Komarovsky는 주부의 '신티자'의 63%가 어머니와 여자형제였다고 지적하였다. 친정친척인 형제자매는 주부와 연령이 비슷해서 서로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기 쉽다. 이러한 자원은 인생후반기에 여성의 사기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된다(McGhee, 1985).

Bell(1968)은 결혼에서 갈등적인 부부는 자신의 주장을 각자의 친척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Laudis는 친척과의 조화롭고, 긍정적인 관계는 결혼생활에서 중요하며, 결혼의 행복에 필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이영희, 1986에서 재인용). 이동원(1984)도 친척과의 만남 빈도가 높은 가정이 부부간의 대화빈도가 높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가정이라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친척이 주부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Blood에 따르면 친척과의 상호작용 빈도와 부부의 결혼만족 간의 관계는 친척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점까지 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더 빈번해지면 결혼만족 점수는 현저하게 떨어진다(Lee, 1974에서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부와 시가관계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이며, 주로 물질적 지지가 교류되는 반면, 친가와는 정서적 지원이 주가 되며, 비공식적, 사교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경원, 1989; 유가효, 1984). 최재석(1975) 역시 주부의 사교나 가사협조는 친가친척과 이루어지며, 집안의 유지, 제사와 같은 의례적 관계는 시가친척과 이루어지기 쉽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보편화된 경향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수정 핵가족'의 형태이므로 친척 관계망과의 관계는 주부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큰 관계망으로 존재하게 된다.

(2) 혈연관계 이외의 관계망

1) 친구관계망

가족이 즉각적이기 보다 장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보상을 기초로 한 사회적 배경이라면, 친구는 청소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제공할 수 없는 즐거움, 관심, 여유 등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경험의 신뢰적인 자원이다(Larson & Bradney, 1988). 또한 친척과의 관계가 정서적인 결속으로 긍정적인 관심(타인의 복지와 활동에 대한 개인적 관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친구와의 관계는 호혜성과 일치(가치, 관심, 태도 등의 공유)를 기초로 형성된다. 따라서 Wood와 Robertson(1978)은 친척관계와 친구관계를 차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책임, 귀속적 특징 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보통 우정이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빈번한 접촉이 아니더라도 수년간 지속되지만(Pahl & Pahl, 1971), 친척관계처럼 영구적이지 않으며 이웃관계와 같이 대면 접촉을 갖지도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유대관계를 갖는다(Litwak & Szelenyi, 1969).

Zimmernan은 밀접한 친구를 갖고 있는 가족일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고, Komarovsky에 따르면 노동자층의 경우 공동의 사회생활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친구관계망은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킨다(Burr et al, 1979에서 재인용).

한편 여성은 남성보다 친구의 수는 적지만, 우정이 더 깊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우며, 물질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정보적 지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이경희, 1988). Marshall(1984) 역시 주부에게 있어서 친구관계가 첫째, 역할연속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둘째, 소외감을 막아주는 동료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며 은퇴와 미망인을 대처하는데 충고를 줄 뿐 아니라 셋째, 활동을 공유하고 지지의 호혜적인 교환을 하는 자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부에게 있어서 친구관계망의 존재와 지지적 도움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이웃관계망

이웃의 개념은 공간적 단위, 유형화된 사회관계, 상징적 집단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집약될 수 있지만(강대기, 홍동식, 1982), 보통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으로서 밀접한 사회관계를 통해 동류의식을 느끼고, 이웃 간의 생활정보를 교환하는 집단을 일컫는다. 즉 이웃은 그 규모가 대단히 적고 구성된 형태나 요소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자연지역(natural area)이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 사람들은 친분 관계를 기초로 비공식적, 대면 접촉을 하고 있다(김동우, 1984).

이웃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친척보다 일상적이고, 단기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며 상호부조의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Litwak & Szelenyi, 1969). 또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Rosow와 Croog 등은 도움의 원천으로서 이웃과 친구는 친척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해준다고 하였다(Burr et al, 1980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익명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로 인해 이웃의 지지적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농촌 주부는 대체적으로 이웃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반면, 도시 주부는 표면적인 접촉을 할 뿐 접촉빈도가 낮은 수준이다(박정순, 1975). 또한 이영희(1986)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주부는 이웃으로부터 가끔씩 일손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이웃가구의 개인적 사항(직업, 자녀수, 연령, 이름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가구는 대부분 한 가구도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도시 사회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 육지부 보다는 제주도 지역에 있어서 이웃관계망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6. 맺는 말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우선 제주 지역 주부의 사회관계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관계망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회관계망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와 기능을 구분하였으며, 주부의 사회관계망이 갖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제주도 주부의 사회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도움과 지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주부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분석하려는 앞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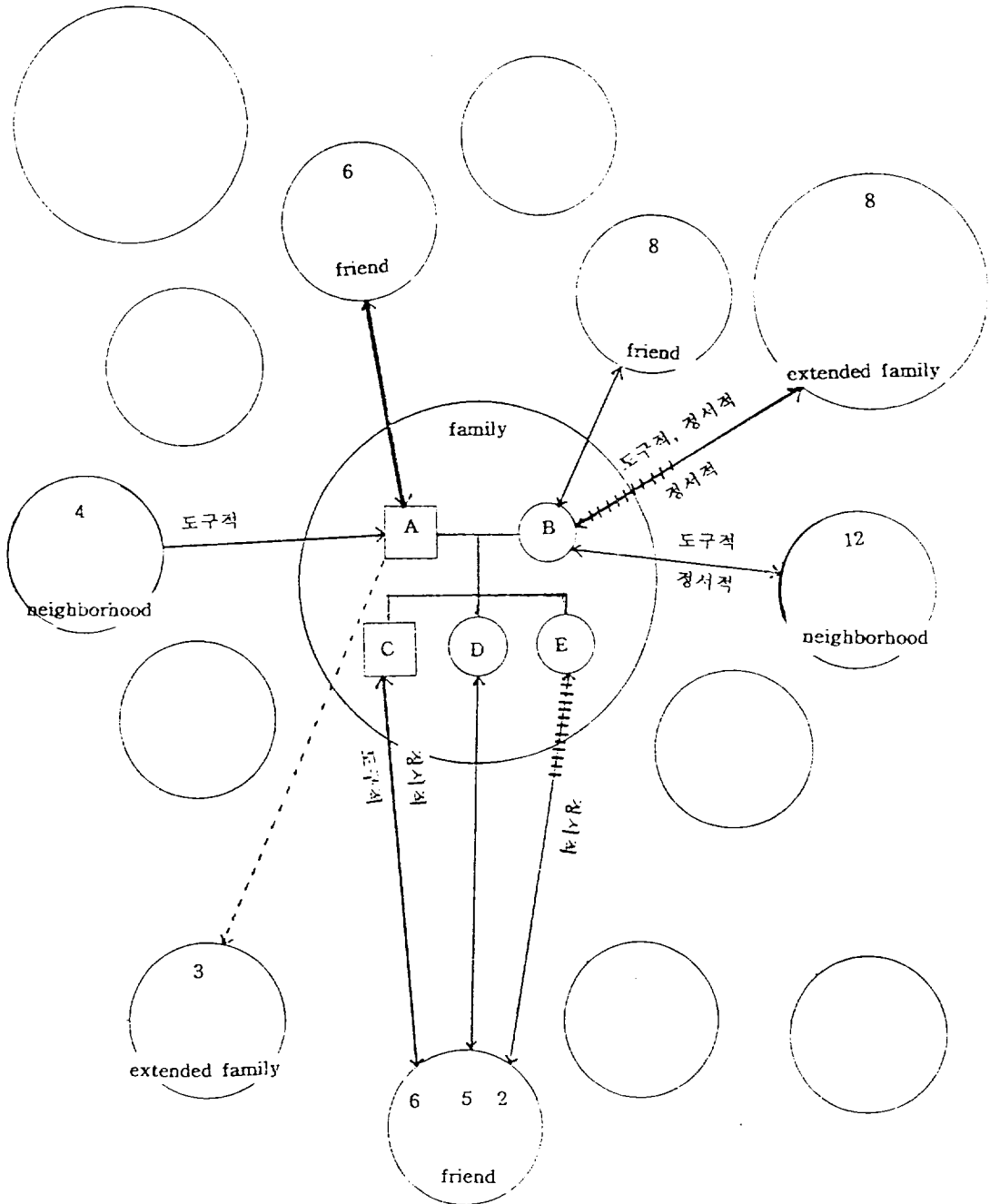
로의 연구를 위한 탐색적 시도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주부의 사회적 관계를 요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회관계망 지도(social network map)를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한 바와 달리 가족관계망과의 관계는 편의상 그림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가족관계망과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고 주부역할 정체감이 강한 주부일 경우 가족관계망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의 종류는 원 안의 내용에 의해 파악되지만, 원이 아닌 다른 도형에 의해 구별할 수 있다. 원 안에 표시된 숫자는 각 사회관계망 종류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크기이며, 이를 총합한 것이 전체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된다. 사회관계망의 중요도는 중심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에 의해 나타내는데, 중요도가 많을수록 가깝게, 중요도가 적을수록 멀리 사회관계망의 위치를 둔다. 중심원과 사회관계망을 잇는 선과 화살표의 방향에 의해 상호작용의 접촉빈도와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선이 두꺼울수록 접촉빈도가 많은 것으로 여기에는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혹은 점선 등이 이용될 수 있다. 화살표의 방향은 일방적 관계와 쌍방적 관계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선 위의 빗금은 관계망과의 갈등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빗금이 많을수록 갈등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 사회관계망과 중심원을 잇는 선 위에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도구적, 정서적 지지와 같은 지지 유형을 적음으로써 사회관계망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망 지도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생태지도(Eco-map) (Bronfenbrenner, 1981) 처럼 주부를 가정내의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개방된 존재로 인식시키게 한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주부의 사회심리적(social-psychological)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으며, 대인간 혹은 사회와의 자원교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지리적 폐쇄성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이 밀접하며, 특히 여성들 간의 유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육지부 도시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제주도 주부를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의 분석 결과를 비교할 경우 사회관계망이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론적 수준의 논의에 불과하였으며, 사회관계망이 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개인별 인터뷰나 사례연구를 통한 연구모델의 정교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과 주부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사회관계망 지도의 예

참 고 문 헌

- 강대기, 홍동식,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근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집, pp. 123 - 140, 1982.
- 김경원,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동우,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정순, 근린사회에 대한 주부의 행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서미경, "노인의 정신건강과 부양의 완충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호지], 제 10권, pp. 68 - 86, 1990.
- 성규탁,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 강화하는 문화적 전통", [한국노년학회지], 제 10권, pp. 164 - 181, 1990.
- 유가효, "도시중류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일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권 2호, pp. 119 - 140, 1984.
- 이경희,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동원,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I) - 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44권, pp. 7 - 36, 1984.
- 이영희, "핵가족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시가 및 친가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 조은, 조옥라,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 최재석, "도시중류 아파트 가족의 친족조직", [고대 인문논집], 20, pp. 155 - 178, 1975.
- 최정혜, 황기아, "도시 주부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5권 4호, pp. 123 - 139, 1987.
- Oakley, A., 문숙재(역), [가사노동의 사회학], 서울: 신광출판사, 1990.
- Barnes, J. A., "Class and Committees in a Norwegian Island Parish", Human Relations, 7, pp. 39 - 58, 1954.
- Barrera, M. J.,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Sage Pub, 1981.

- Bell, C., *Middle - Class Famil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8.
-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erkowitz, A.D. & Perkins, H.W., "Stress Among Farm Women : Work and Family as Interacting System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pp.161 - 166, 1984.
- Burr, R. et al.,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 The Free Press, pp.66-78, 1979.
- Bott, E., *Family and Social Network*, London : Tavistock Pub, 1971.
- Chodorow, N. & Contratto, S., "The Fantasy of the Perfect Mother", *Rethinking the Family : Some Feminist Questions*, NY : Longman, 1982.
- Caplan, R.D. et al., *Adhering to Medical Regimes : Pilot Experiments in Pati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Ann Arbor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76.
- Cochran, M.M. & Bassard, J.A.,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 - 616, 1979.
- Cobb, S., "Social Support and an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 300 - 314, 1976.
- Cohen, S. & Syme, S.L., *Social Support and Health*, NY : Academic Press, 1985.
- Coleman, L.M. et al., "Social Roles in the Lives of Middle - Aged and Older Black Wome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pp. 761 - 771, 1987.
-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Y : Schocken Books, 1964.
- Deacon, R.E. & Firebaugh, D.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88.
- Eaton, W., "Life Events, Social Supports and Psychiatirc Symptom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pp.230 - 234, 1978.
- Eckenrode, J. & Gore, S., "Stressful Events and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Pub, 1981.
- Ferree, M.M., "Satisfaction with Housework : The Social Context", *Women and Household Labor*, pp.89 - 112, 1980.
- Gallo,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he Health of Elderly Persons", *Social Work Research & Abstracts*, 8, 2, pp. 13 - 19.

- Gottlieb, B.H.,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Pub, 1981.
- Hirsch, B.J., "Natural support systems and Coping with major life chang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pp.159 - 172, 1980.
- House, J.,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Philippines : Addison - Wisley Pub, 1981.
- Johnson, M.P. & Milardo, R.M., "Network Interference in Pair Relationship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pp.893 - 899, 1984.
- Keith, P.M., *The Social Context and Resources of the Unmarried in Old Age*,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3, No.2, pp.81 - 96, 1986.
- Kessler, R.C. & McLeod, J.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Community Samples", *Social Support and Health*, NY : Academic Press, 1984.
- Killworth, P.D et al., "Measuring Patterns of Acquaintanceship", *Current Anthropology*, 25, pp. 391 - 397, 1984.
- LaRocco, J.M. et al.,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pp. 202 - 218, 1980.
- Larson, R. & Bradney, N., "Mutual emotions among friends", paper manuscript in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 Lee, G.R., "Effects of Social Network on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 The Free Press, pp.27 - 56, 1979.
- Liang, J. et al., "Social Integration and Morale : A Reexamination", *J. of Gerontology*, 35, pp. 746 - 757, 1980.
- Litwak, E. & Szelenyi, I., "Primary Group Structures and Their Functions : Kin, Neighbors, and Fri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pp. 465-481, 1969.
- McGhee, J.L., "The Effects of Sibling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pp. 85 - 91, 1985.
- Marshall, N.L., *Bonds Between Women : Female Bonding Among Working Class Wome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4.
- McCannell, S.K., *Social networks and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 A longitudinal analysi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nitoba, 1984.
- McLanahan, S.S. et al., "Network Structur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in the Single - Parent Famil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pp. 601 - 612, 1981.
- Milardo, R.M.,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Newbury Park : Sage Pub, 1988.

- Mitchell, J.C.,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9.
- Myers, J.A. & Coward, R.T., "Natural Helping Networks", *Family Services : Issues and Opportunities in Contemporary Rural Americ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 Pahl, R.E. & Pahl, J.M., *Managers and Their Wives*, London : The Penguin Press, 1971.
- Pinneau, S.R.,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Strai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75.
- Rands, M. & Levinger, G.,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 : An Intergenerational Stud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pp.645 - 661, 1979.
- Ratcliff, K.S. & Bogdan, J., "Unemployed Women : When Social Support Is Not Supportiv", *Social Problems*, Vol.35, No.1, pp.54 - 63, 1988.
- Smuts, R.W., *Women and Work in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 Stoller, E.P. & Earl, L.L., "Help with Activities of Everyday Life", *The Gerontologist*, 23, pp.64 - 70, 1983.
- Surra, C.A., "Courtship Types : Variations in Interdependence between Partners and Social Network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pp.357 - 375, 1985.
- Thoits, P.A.,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pp. 145 - 159, 1982.
- Weiss, R.S.,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Doing unto others*, NJ : Prentice - Hall, 1974.
- Wellman, B. & Berkowitz, S.D., *Social Structures :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Wheaton, B., "Stress,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sychiatric Symptom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pp.208 - 229, 1983.
- Wilcox, B.L., "Social Support in Adjusting to Marital Disruptio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Pub, 1981.
- Wood, V. & Robertson, J.F., "Friendship and Kinship Interaction : Differential Effect on the Morale of the Elderl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pp. 367 - 373, 1978.